

국회의원과 상호협력 예산확보 협의

군산시, 김관영 의원 등과 정책협의회 개최 자동차 대체부품 클러스터 조성 등 건의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군산시가 지역출신 김관영 국회의원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김임준 군산시장과 김관영 국회의원을 비롯한 이승복 부시장, 간부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했으며 시정 주요현안 사업 추진 방향 및 당위성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중앙부처 예산 편성과 관련된 분야별 현안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으며, 자동차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대체부품 클러스터 조성 등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부처단계에서부터 군산시와 공조해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정책협의회를 통해 도출된 사업안과 주요 현안에 대한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군산시와 김관영 의원실간 상호 정보 공유와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건의된 주요사업은 ▲자동차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대체부품 클러스터 조성 35억원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 50억원 ▲수제맥주 청주 특화거리 조성 15억원 ▲영동상가 하수관거 정비사업 25억원 등 총 36개로, 중앙부처별 반응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미진사업에 대한 대응논리를 수립하는 등 향후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지난해 김관영 의원실과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구축

하여 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부 추가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정부 정책과 부합하는 시책을 발굴하여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기가 빠른 시일에 회복될 수 있도록 김관영 국회의원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국회의원은 "우리지역 예산 확보를 위해서 기재부 등 정부부처를 만나 사업을 직접설명하고 예산지원을 간곡히 요청했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정부추경, 목적예비비 등에 추가확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가 제39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기념식을 열었다.

익산시, 장애인의 날 기념식 개최

익산시(시장 정현율)와 익산시 장애인연합회(회장 신용)가 지난 19일 제39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중앙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기념식을 열었다.

"모두가 함께하는 세상"이라는 슬로건 아래 마련된 이번 행사는 지역의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1000여명이 참여해 화합의 장을 연출했다.

1부 기념식은 시각장애인협회중앙회(회장 신용)가 주관하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중앙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기념식을 열었다.

"모두가 함께하는 세상"이라는 슬로건 아래 마련된 이번 행사는 지역의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1000여명이 참여해 화합의 장을 연출했다.

1부 기념식은 시각장애인협회중앙회(회장 신용)가 주관하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중앙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기념식을 열었다.

및 비장애인들에게 온수마루침대 등의 푸짐한 경품을 제공했으며 별도로 마련된 부스에서는 구제 의류 등의 나눔 행사가 진행돼 호응을 얻었다.

행사에 참여한 최 모 씨는 "장애인들만의 축제라고 생각했는데 비장애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참여해 놀랐다"며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세상인 만큼 서로에 대한 편견의 벽을 허무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남동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장애인 복지를 위해 헌신한 시민 53명이 시장과 시의장으로부터 표창과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행사에서는 참여한 장애인 /익산=정인천 기자

익산시 청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 추진

익산시(시장 정현율)는 전북도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전북북도 평생교육 진흥사업' 공모에서 일자리를 찾는 청년 부문에 선정돼 청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도내 시군 및 평생교육 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익산시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라이프스타일을 설계했다.

차별화된 스토리텔링 자기소개서를 써보는 '익산 청년탐구생활' 프로그램을 제안해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익산 청년탐구생활'은 올해 6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총 8차례로 진행되며 청년들에게 자신이 바라는 주체적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했다.

자기소개서와 면접 등 취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정까지 연계해 진행될 예정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왕궁리 유적에서 보내는 특별한 하룻밤

익산시, 27일 '백제왕궁 천년별밤 캠프' 개최

세계문화유산인 왕궁리 유적에서 특별한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백제왕궁 천년별밤 캠프'가 오는 27일 개최된다.

익산시(시장 정현율)는 왕궁리유적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가족 탐방객을 대상으로 '백제왕궁 천년별밤 캠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개최되는 '백제왕궁 천년별밤 캠프'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익산 왕궁리유적의 소중한 문화 유산적 가치를 알리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1박 2일 동안 지역의 문화재를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익

힐 수 있다.

이번 캠프는 27일 1박2일을 시작으로 5월 18일과 25일, 7월 13일, 9월 28일, 10월 12일 등 총 6회에 걸쳐 진행되며 오후 5시에 시작해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진행된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족들은 백제왕궁의 역사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왕도역사관 탐방을 시작으로 서동이 무왕이 되기까지 겪었을 다양한 고난극복의 이야기를 5~6개의 미션수행 활동을 통해 경험하게 된다.

또한 '왕궁올림픽'과 등불을 들고 왕궁리 오층석탑을 돌며 참가자들의

소원을 기원하는 '천년희망나눔' 등 다양한 체험과 백제왕궁에서 바라보는 해맞이 등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캠프참가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김청소년활동연구소(070-7563-8834)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도 백제왕궁 천년별밤캠프를 포함한 생생문화재, 향교서원 문화재활용사업, 문화재야행 등 다양한 특색 있는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운영을 운영할 계획이다"며 "시민들에게 우리고장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고, 다채로운 역사문화 콘텐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익산=정인천 기자

군산시, 사회복지공무원 대상 역량강화 보건복지서비스 교육

군산시는 사회복지공무원을 대상으로 읍면동 핵심리더 역량강화 및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교육을 실시했다.

시 사회복지행정연구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교육은 기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에 더해 주민주인 참여를 통한 지역중심의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 패러다임에 대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교육'이 진행됐다.

특히 서울특별시 '찾동(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에 대한 유희수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복지정책과장의 우수사례 강의를 통해 사업에 대한 이

해도를 높다.

시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점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전문 강사를 초빙해 대상자 상담·신청 및 통합업무 처리방법 등 갈수록 복잡했다.

다양해지는 복지 수요에 사회복지공무원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읍면동 핵심리더 양성과정 교육'이 실시됐다.

김정원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회복지공무원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 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고석권 사회복지행정연구회장은 "군산시 사회복지공무원을 위해 강의 해 주신 유희수 복지정책과장님께 감사드리고 있다.

시의 사회복지직공무원 160여명이 주민들에게 최선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 사회복지직공무원은 1991년 별정직 공무원으로 시작해 2000년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됐다.

약 160여명의 사회복지직공무원들이 복지관련 부서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청소소년상담복지센터 1388청소소년지원단 회의

익산시청소소년상담복지센터(시 직영)가 지난 19일 1388청소소년지원단 상반기 회의를 개최하고 위기 청소년 보호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원단의 역할과 위기청소년들을 보호할 사회안전망 구축 등에 대해 논의했다.

북부시장 장남을 이용해 시민들에게 청소소년상담복지센터를 알리는 거리캠페인도 함께 진행됐다.

김관식 1388청소소년지원단 위원장은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발굴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청소년 보호와 선도활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익산=정인천 기자

군산시, 봄철 진드기 매개감염병 주의 당부

군산시보건소(소장 정현태)는 봄철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쯤즈가루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라임병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그 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4월~11월에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주로 작은 소피참진드기)에 물린 후 38~40℃의 고열과 오심, 구토, 설사 등 소화기증상이 나타나는 감염병이다.

특히 SFTS 감염 위험군인 농촌지역 고연령층은 감염에 주의해야 하며 야외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과 소화기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SFTS는 예방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농작업·등산 등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오늘 '지구의 날' 기념 소등행사 추진

익산시(시장 정현율)는 제49회 지구의 날을 맞아 22일 오후 8시부터 10분 동안 시청을 비롯해 공동주택 190여곳을 중심으로 소등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환경부와 동시에 진행되며 시민이 자발적인 참여로 일상생활 속에서 에너지절약을 실천하도록 유도하고 저탄소생활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익산=장양원 기자

시 관계자는 "지구의 날 소등행사를 통해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많이 알려지고 작은 실천이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저탄소 생활 실천이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을 주는 만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번 행사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신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명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이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